

문화

중생의 고통 어루만져주는 33관세음보살 화판에 나뉘

33관음도로 순례 마친 불화가 남긴 화백

“관세음보살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이번 생 저에게 주어진 의무라 생각합니다.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관세음보살님은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화현하시어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져주시는 자비의 관세음보살님을 현대화된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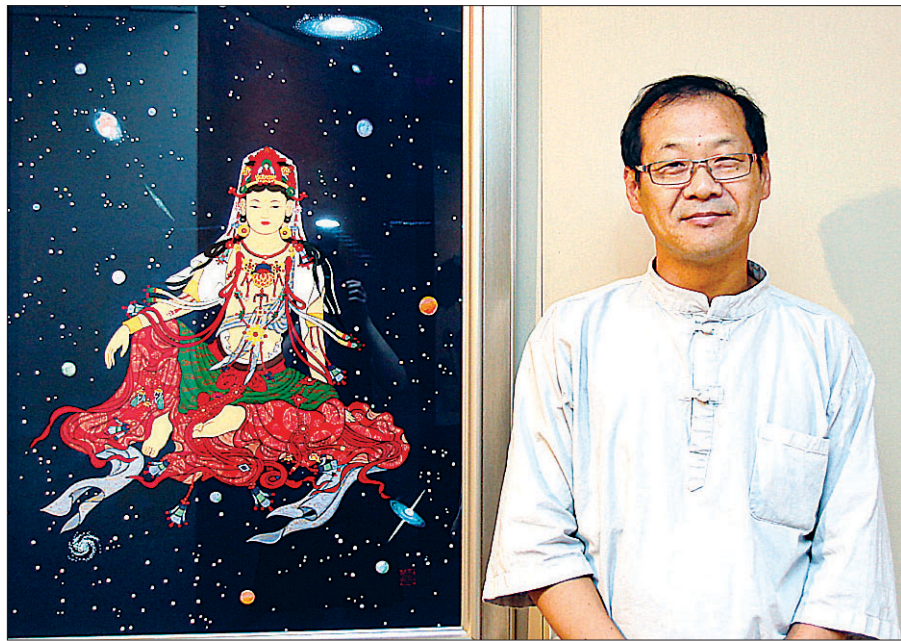
불화가 남긴 작가가 33관음을 주제로 33개 사찰 순회전을 마쳤다. 2010년 종로 법련사에서 시작해 올해 초 삼각산 삼성암을 마지막으로 서른 세 개의 전시가 마무리 되었다.

“2010년 낙산사에서 조감도를 그리기 위해 108배 기도를 하며 두 달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흥련암에서 기도를 하다가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되었죠. 늘 관세음보살님의 존재를 그림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야 결심을 했습니다. 33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해 전국순회를 하려고 말이죠.”

안동 신계사, 울산 정광사, 함천 해인사, 부산 범어사,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을 다니며 그는 관세음보살의 존재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렸고 70만 명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진경했다. 그동안 남 작가는 관세음보살보문품, 법화경, 화엄경 등을 통해 관세음보살에 대한 도상적 학문적 근거를 찾아내 그만의 관세음보살을 창조해 내기도 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이기도 한 ‘모자관음’은 모성의 존재를 간직한 관세음보살을 현대화된 모습으로 표현해내 눈길을 끈다.

“관세음보살은 항상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나 고려의 왕건 등은 자신의 어머니를 성모로 표현해 왔고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는 존재가 있습니니다. 특히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있는 피에타는 정말 유명한 조형물이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이런 존재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에 모자관음을 조성해 관세음보살의 어머니 같은 자비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구성하는 우주적 관점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친 ‘은하관음’, 문헌에 근거한 용을 탄 관음을 표현해낸 ‘귀룡관음’ 등도 눈길을 끈다. “절에 가면 칠성명화가 있고 화엄경 법화경에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은하관세음보살로 그려보았습니다. 용을 탄 관세음보살 역시 문헌에서 찾아내어 제 상상을 덧붙여



불화가 남긴 작가는 관음을 주제로 33개 사찰 순회전을 마쳤다.

2010년부터 서울 법련사에서 출발 전국 33개 사찰 순회전 마쳐 ‘모자관음’, 현대화된 모습으로 표현 10월 19일 동해 삼화사에서 전시



피에타를 떠올리며 완성한 ‘모자관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단순한 모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그만의 관세음보살을 고안해 냈다. 또한 전시기간동안 남 작가의 삶에도 또 관람객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왔다. “33개의 사찰을 돌면서 여러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유서 들고 절에 오셨던 한 거사님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엇인지 모를 기운에 이끌려 제 그림을 보러 오셨던 지산 스님과는 좋은 인연을 맺고 생명나눔살천 본부를 돕는 일에도 작게나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힘들었던 분들도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원만히 풀려 감사의 인사를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남종진 씨는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불교미술학을 공부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왔다. “파리에서는 빛의 표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작업들이 이번 관세음보살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3개 사찰 전시가 끝난 지금 그의 행보는 여전히 바쁘다. 10월 19일 동해 삼화사에서 수록재와 함께 33관음도를 전시할 예정이며, 내년 초를 목표로 그동안의 전시를 책으로 정리한 에세이도 펴낼 계획이다.

“33개 사찰을 순회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와 관세음보살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의 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알려 나가는 것이 이번 생에 주어진 제 업임을 알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천리 멀리 글 구하는데 어찌 거절하리요

선불교 정신 담은 신라고찰

김전 직지사(直指寺)는 백두대간의 웅장한 기운을 품고 있는 황악산(黃岳山 1,111m)을 등지고 앉은 유서 깊은 도량이다. 418년 아도화상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것이 법흥왕 14년(527)이라는 점에서 그리 신빙성은 없다. 다만, 아도화상이 활동한 모례원과 도리사 등이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신라불교의 전법지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직지사라는 절 이름에 담긴 의미가 흥미롭다. 직지라는 말은 선종의 용어에서 온 것이다.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이는 말로써 가르치는 경지를 넘어서 인간의 본성을 직접 꿰뚫고 들어가 성불을 한다는 것이다. 사변(思辨)이 아닌 직관으로 인간 실체의 궁극을 잡아채는 선종의 정신을 요약한 말이다.

직지사라는 절 이름이 아도화상에서 기인한다는 설도 있지만, 어느 시대부터인가 직지사의 수행가풍이 선종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절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고려 말과 조선의 초중기의 선비들이 직지사를 주제로 지은 시들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성들이 보일 뿐 선불교의 정신을 담아낸 경우는 없다. 목은 이색(李穡 1328~1395)의 시는 유학을 하는 선비들과 불교의 스님들과 교유가 깊은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 밝히고 있어 흥미롭다.

귀곡금거백련사(龜谷金居白蓮社) 양려석재황악산(襄樂石在黃岳山) 보문은석곡복구(普門雲石窟欲復舊) 목은로옹방투한(牧隱老翁方投閑) 천리구문감자의(千里求文敢自外) 제방양풍무소간(諸方仰風無少間) 고래유석공유회(古來儒釋共游戲) 사해미천성가반(四海彌天誠可攀)

귀곡이 지금은 백련사에 기거하거나 옛날엔 황악산의 양려에 기거했었네. 보문사 풍류 스님은 집을 복구하려는데 목은 늙은이는 방금 한가히 있는 때라서 천리 멀리 글 구하는데 어찌 거절하리요. 제방은 풍고 받들기에 작은 틈도 없으니, 고래로 유자와 불자가 함께 유희했거니. 사해와 미천을 참으로 따라잡을 만하네.

이색의 문집 <목은집(牧隱集)> 제21권에 실린 이시의 제목 자리에는 ‘전(前) 내 원당(內願堂) 운 귀곡(雲 龜谷)이 백련사(白蓮社)에 있으면서 보문사주(普門社主)와 함께 장자 황악산(黃岳山)의 직지사(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든 선비의 詩心

38 직지사 ㉔



직지사 대웅전(경북유형문화재 제215호)과 삼층석탑(보물 제606호)

指寺)를 중수(重修)하려고 노인(老人)에게 서신을 보내와서 연화문(緣化文)을 요구하다 라는 긴 글이 적혀 있다. 목은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다.

시에 나오는 ‘운 귀곡’은 스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운은 공민왕(恭愍王) 때의 선승(禪僧) 각운(覺雲)을 가리키고, 귀곡은 바로 그의 법호(法號)이다. 목은은 각운 스님이 직지사 중건을 위해 모연문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감회를 시로 적은 것이다.

둘째 구절의 양려(襄樂)는 부부금슬이 좋아 쌍으로 다니는 원앙새처럼 마주보며 서 있는 집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각운이 한 때 살던 직지사의 좌우 익랑을 그렇게 부른 것이다. 목은은 친분이 두터운 각운 스님의 부탁을 어찌 거절하겠냐고 장담하며 시를 전개시키고 ‘고래로 유자와 불자가 함께 유희했음’을 말하고 있다.

결구에 나오는 사해(四海)와 미천(彌天)은 중생계와 불국토를 은유하는 말이다. 미천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미타천 즉 정토세계이고 유교적 입장에서는 아주 고매한 뜻을 비유하는 단어다. 그에 비해 사해는 인간이 사는 세상, 중생계인 것이다.

모연문 부탁에 즐거운 마음목은이 이 시에서 ‘사해와 미천을 따라잡을 만하다’고 한 것은 중국 진(晉)나라 때의 고승 도안(道安 312~385)과 관련된 일화를 차용한 것이다. 도안(道安) 스님이 형주(荊州)에서 처음으로 문장가로 이름 난 습학치(習鑿齒)와 서로 만났을 적에 도안이 “나는 미천 석도안(彌天釋道安)이요” 하자, 습학치가 “나는 사해 습학치(四海習鑿齒)요.”라고 하여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던 것

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불교와 유교라는 각자의 길에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아무튼 목은 이색은 친분이 두터운 각운 스님의 모연문 청탁을 받고 불가의 스님과 유가의 선비는 오래전부터 친근했던 사실을 드러내며 가까이 모연문을 쓰겠다는 마음을 시로 표현했다.

한수조개력구승(蘭陔 蓋歷溝 7) 청일훈풍백이등(淸日薰風麥已登) 관단재오심옥판(觀段載五心玉板) 도리요객철금승(瑯嶠遊客徹金繩) 청천입양분신죽(淸泉入 9)晨粥) 결월규림체불등(缺月窺簾替佛燈) 삼십년전독서지(三十年前讀書地) 송삼의구벽충층(松杉依舊碧層層)

한가히 태수따라 붓도랑 발두둑 지나노니 개인 날 훈훈한 바람에 보리가 벌써 익었네.

관단마는 나를 태워 옥판을 찾아가는데 스님은 손님맞으려 금줄을 걸어치우누나. 맑은 샘물은 동이에 길러 새벽죽을 나누고 이저러진 달은 주름에 비취 부처 등불 갈음하네. 삼십년 전에 내가 글을 읽던 곳인데 소나무 삼나무는 여전히 층층이 푸르구나.

이 시는 정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작품이다. <정필재집(佔畢齋集)> 제16권에 실려 있다. 제목 자리에는 ‘이 군수 및 최태보 삼 형제와 함께 직지사서 노닐었는데, 이날 군수는 돌아가고 다만 최태보와 함께 자대(與李郡守崔台甫三昆季遊直旨寺是日郡守還獨與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 수도 있다

NAVER D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약사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제도하실 분 모든 기술 전수. 서울, 경기지역 포교원 원장님 모십니다. 최면술 / 퇴마술 / 기공술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 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음달길 19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임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토곡산의 정기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부산역 상담센터

상담 / 문의 1899-8108. 010-9229-3801